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한파 극복

전북자치도, 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 연달아 열고 예산 집행 상황 점검
연말 지역소비 활성화 위한 모임 추진·공공부문 필요 물품 지역상가 구입 독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력 기울이기에 나섰다.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실국 집행점검 회의와 18일 도·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연말연시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년회와 각종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도록 독려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도 앞당겨 준비할 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실국 집행점검 회의와 18일 도·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폭설, 산불 등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 상황

이 혼란스러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병관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 개최
기금 활용 최적화·시군 투자계획 평가 대응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그리고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의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평가 우수사례 공유,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위원회와 컨설팅단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금 활용을 최적화하고 각 시군에서 투자계획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기배 연구기획실장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시사점과 2026년도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올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남원시의 사례가 공유됐다.
남원시는 지역 특화산업인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각 시군이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회의에서 자출생 핵심 주거대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향주택' 사업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은 도·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인구 활력을 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방소멸 극복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모색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교육위)과 전주대 행정학과 전대성 교수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한 대학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전주대 전대성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론회로 학계 전문가, 외국인 유학생, 도내 기업체 임직원 등 다수가 참여해 정책적 논의의 물문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고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해졌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병철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도내 다수 기업체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

생을 적극 활용해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도의회는 물론이고 전복도와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한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내년 예산 8494억원 확정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이루어졌고,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41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과 함께 폐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건이 추가 통과되어 이번 회기 동안 총 42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훈)를 통하여 심사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예산안 등에 대해 중점된 사업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사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2025년도 고창군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부 수정된 약 8,4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76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조민규 의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엄중한 상황을 맞이한 이때 평화적 연대를 통해 미래를 앞도하는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2024 국감 우수’ 선정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성운 의원은 2024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 지적,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등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정부 운영을 비판하고,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



터 제1호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탄핵소추단으

로 임명되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나섰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입수수색 제도개선안 마련 △무분별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제도개선안 마련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제21대 국회 4년에 이은 5년 연속 수상이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자 동행 명령장 발부와 현장 동행, 기자회견 등을 제안하며 전략통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불법 관저 공사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시스템 붕괴를 지적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총경 회의’ 참석자라는 이유로 해외주재관 파견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경찰청장에게 제2중양경찰학교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압 행사



여부를 끈질기게 캐물으며 공정한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한 의원은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급식단가와 질이 천차만별인 탓에 소방관에 부실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 밖에도, 한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요금 수수료 편차, 스물췌내 어린이 교통안전, 공무원 KTX 마일리지 사적 사용,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부실, 폭우 대비 빗물 처리 대책 마련 필요성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제기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한준호 의원

전북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최고위원, 경기 고양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이끌어냈던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위법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및 분리기준 적용 의혹 △LH 사장의 국가비전연구원 이해충돌 우려 △풍곡두센터 부산분관 유지와 박형준 시장 부인의 화랑 관련



의혹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인사청탁 비리 의혹 △한국의철도공사 직원의 허위 평가 및 근태관리 미흡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 관련 증인 신문을 통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일가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민주당 대표 스트라이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 2023년 2월 8일 ~ 2027년 2월 7일

군산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보호자, 간병 부담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동행
호스피스 병동 운영



대표전화 063) 472-5000